

<서평>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Oded Lipschits,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강후구\*

## 1. 서론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책은 현재 텔아비브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며 텔 아세가(Tel Azeka)를 발굴하고 있는 오데드 립쉬츠(Oded Lipschits)의 박사학위 논문<sup>1)</sup>을 후속 연구와 함께 녹여 만든 작품으로 십여 년 전에 출판되었다. 저자가 인사말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히브리어로 출판된 지(2004년) 1년 후에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것이다. 십여 년 전 출판된 책을 평가하는 것은 어찌면 때가 지난 일인지도 모른다. 이는 한편으로 출판된 책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이미 그 가치와 기여점들을 부족한 점과 함께 다루었기 때문이며,<sup>2)</sup> 또 다른 한편으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이 책의 출판 이후 심도 깊은 다른 연구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서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에서 성서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hoogoo7008@gmail.com](mailto:hoogoo7008@gmail.com).

- 1) Oded Lipschits, "The 'Yehud' Province under Babylonian Rule (586-539 B.C.E.): Historic Reality and Historiographic Conceptions", Ph.D. Dissertation (Tel Aviv University, 1997).
- 2) John W. Betlyon,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by ODED LIPSCHIT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8:4 (2006), 737-738.
- 3) Oded Lipschits and Manfred Oeming,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Oded Lipschits, Gary N. Knoppers, and Rainer Albertz,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fourth century B.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Oded Lipschits and David S. Vanderhooft, *The Yehud Stamp Impressions: A Corpus of Inscribed Impressions from the Persian and Hellenistic Periods in Judah* (Winona Lake: Eisenbrauns,

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시대에 관하여 성서, 역사 자료 그리고 고고학 자료를 종합한 연구 결과물로써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의 독보적인 연구이기 때문이다.

## 2. 평가

이 책의 가치와 기여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서평에서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 방법론, 내용, 기여점 그리고 결점 등 다섯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2.1. 시기

이 책은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부터 멸망당한 이후의 시기를 다룬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시온신학과 성전신학이 허물어지거나 변환되는 시기이며,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후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시기이다. 구약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고고학에서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몇몇 학자들이 이 시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나,<sup>4)</sup> 부분적으로 다를 뿐 이 책이 다루는 범위와 깊이만큼 관여한 책은 없었기에 이 연구의 가치는 높다 할 수 있다.

### 2.2. 방법론

바벨론에 의한 멸망 시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저자는 성서와 역사 자료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통합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그의 지도 교수 나다브 나아만(Nadav Na'aman)이 즐겨 사용하

---

2011); Oded Lipschits, Gary N. Knoppers, and Manfred Oeming,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Achaemenid period: Negotiating Identit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4) 예를 들어, Ephraim Stern,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The Assyrian,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732-332 B.C.E.)*, The Anchor Yale Bible Reference Libr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301-350.

였던 것으로서 지금까지도 텔아비브대학교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나아만이 ‘람멜렉’ 인장의 시기와 분포를 바탕으로 성서와 역사 해석을 하였던 것처럼<sup>5)</sup>, 모짜 인장과 예후드 인장의 시기와 분포를 바탕으로 바벨론 멸망 시기의 역사 재구성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연구 방법론은 통시적 방법론이다. 이는 저자도 책에서 몇 차례 언급하였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시기의 유다 지역 관련 행정 문서가 발견된 것이 없다는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고학적 지표 조사와 발굴 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한편, 긴 기간의 흐름 속에서(long durée) 이 시기를 살펴보려 하였다. 즉, 저자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전의 앗수르의 침략과 지배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르는 흐름 속에서 바벨론 시대를 살펴보아 독자로서 하여금 이 책을 통하여 역사적 변화 속에서 예루살렘/남유다 멸망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저자는 성서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 비평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서의 각 본문을 층으로 나누고 층에 따른 시대와 상황이 있음을 견지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성서 본문의 층들을 바벨론 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와 함께 연결시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 2.3. 내용

이 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중심 부분인 책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3.1. 제1장

제1장의 내용은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당하여 멸망당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1-35쪽). 먼저 저자는 큰 그림으로 남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역은 시리아, 페니키아와 함께 고대 근동의 주요 두 제국 세력 사이에 속한 것임을 주지시킨다. 이 지역은 주전 2천 년대부터 1천 년대 초반, 즉 주전 8세기 앗수르 왕 티글랏필레셀 3세에 의하여 점령당하여 통합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어떤 한 나

5) Nadav Na'aman, "Hezekiah's Fortified Cities and the LMLK stamps", *Bulletin of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61 (1986), 5-21.

라 또는 민족에 의하여 한 지역 범위로 이해되거나 기록된 적이 없음을 지적한다. 즉 바벨론의 이스라엘 지역 정복과 이집트로의 진출은 앗수르에 의하여 교두보가 확보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시킨다. 앗수르는 이 지역을 식민지로서 앗수르의 경제적, 군사적, 전략적 이익에 따라 멸망시키고, 이주시키고, 정치적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 과정들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고스란히 바벨론과 심지어 페르시아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 가운데 저자는 두 가지 사항을 빼놓지 않는다. 하나는 앗수르바니팔 이후 어떻게 하여 앗수르 세력이 약화되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제국 세력 이집트가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역사적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저자가 이 장에서 앗수르의 세력 약화와, 이집트와 바벨론 간의 전투, 특히 갈그리스 전투에서의 패배로 이집트의 패권 차지 실패, 이 두 가지 사항이 주전 7세기 말경 바벨론이 유프라테스강 지역까지 이르는 고대 근동 지역의 맹주로 등장하는 주요 배경이 되었음을 주지시킨 것은 적절한 역사 해석이다. 이 때 저자가 설명한, 바벨론이 ‘강 너머’ 지역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경제적이고도 전략적 이유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 2.3.2. 제2장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역사 자료와 성서 기술을 바탕으로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시기를 다룬다(36-133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 가운데 한명은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른 한명은 바벨론으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결국 다윗 왕조는 멸망당한다. 저자는 이 역사의 방아쇠를 당긴 인물 느부갓네살 2세로 이 장을 시작한다. 저자는 그의 역사적 행보로 일어난 사건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일어난 역사적 인과 관계를 설명한다: 그는 통치 초기 2년(주전 605-604년)에 하티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는 이집트로 가기 위한 다리 역할이었음을 지적 한다(36-49쪽). 또한 주전 601년 이집트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패배한 사실을 저자는 잊지 않는다(49-55쪽). 이 점이 바로 다시 남유다가 바벨론에 반항을 불러일으킨다(왕하 24:1). 주전 598-597년 바벨론의 하티 지역 원정 이후 곧 남유다 점령이 이어지는데 이는 곧 바벨론 대항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다(왕하 24:2). 이 때 여호야김의 죽음은 곧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11년을 버틸 수 있게 하였다. 여호야김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남

유다의 사회적, 종교적, 군사적, 경제적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송시켰다.

한편, 저자는 프삼메티쿠스 2세(주전 595-589)를 통한 이집트 세력 확장에 주목하는데 이는 남유다를 포함한 바벨론의 속박 하에 있던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남유다에게 바벨론에 반항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의 바로 호브라(주전 589-570)는 이 반항을 더욱 부추겨 정점에 다다르게 하였다(70-72쪽). 이로 인하여 바벨론은 봉신국들에 대한 정책을 직접 통치로 바꾸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이끌었다(72-97쪽). 저자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멸망 이후 바벨론에 의한 통치 시기(주전 586-538년)를 다루는데, 그달리야 총독 임명 사건,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 예루살렘 멸망 후 새롭게 등장한 미스바의 중요성 부각, 그달리야 살해 이후와 포로 귀환 이후의 유다 지역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97-126쪽).

### 2.3.3. 제3장

이 장에서는 바벨론의 침공 결과로서 유다의 경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다룬다(134-184쪽). 저자는 이를 위하여 전언한 바와 같이 긴 시간 속에서 이 변화를 살펴보고 노력하였는데 왕국 말기 시대 즉 주전 7세기 요시야 시대에서 그리스 시대까지의 경계 변화 속에서 이해하려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파 정착 관련 문헌과 포로 귀환 목록들 등의 성서 자료, 발굴 및 지표 조사를 통하여 알려진 사실과 모짜 인장과 예후드 인장 등 고고학 자료를 분석하였다(149-152쪽, 174-184쪽). 저자는 요시야 시대는 베냐민 지역, 유다 지역을 포함하였지만, 그리스 시대에 들어서는 남쪽과 남서쪽의 지역이 이두메아 지역에 속하는 분명한 경계 변화를 먼저 언급하고, 이후 다루는 시대인 바벨론 침공 이전과 이후 시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각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유다 내 바벨론인들의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과 남쪽에 설립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 남유다 왕국은 약화되었지만, 바벨론 침공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대와 별 변화가 없는 지역은 모짜 인장이 발견되는 베냐민 지역임을 주지시켰다.

### 2.3.4. 제4장

제4장에서는 이 책의 가장 큰 공헌점 중의 하나를 다루는데 즉, 바벨론

정복으로 인한 물질 문화의 변화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약 70년 기간의 바벨론 통치 시대의 고고학적 연구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여 간과되었거나 간략하게만 다루어졌는데(185-191쪽) 저자는 이 장에서 이를 물질 문화 특히, 토기 형태 분석을 통하여(192-206쪽) 바벨론 시대는 후기 철기 시대 말과 페르시아 시대간의 불연속성보다는 연속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한편으로 바벨론 시대의 남유다를 크게 다섯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정착 변화를 살펴보았다(206-271쪽). 고고학적 분석을 통하여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모두가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후기 철기 시대 말경 파괴된 지점들이 있으며 이와 함께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쉬펠라 지역, 유대 산지 남쪽 지역과 네게브 지역과 유대 광야 지역의 정착 지역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사실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베냐민 지역과 유대 산지 북쪽과 중앙 지역은 고고학적 분석을 통하여 중심 장소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파괴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저자는 앗수르 이후 바벨론 시대에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정착하고 있었음을 주지 시켰다. 이 지역들은 성서의 분석과 모짜 인장이 발견되는 지역이 같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시기 베냐민 지역에서는 미스바, 기브아, 기브온 등 중심 장소들에 주로 정착이 이루어지고 이 외에 다른 장소들은 거의 버려지거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의 장소들과는 달리 유대 산지 북쪽과 중앙 지역은 후기 철기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 사이에 정착 지역의 범위가 거의 변화가 없다. 이 대조적인 모습은 시대에 따른 인구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베들레헴 부근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베냐민 산지는 약 57%가 줄어들어 반면 다른 모든 지역들은 70-90% 가까이 이른다.

### 2.3.5. 제5장

본문의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일반 성서시대 고고학자들과 다른 저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바벨론 시대와 관련된 성서 본문의 내용을 성서학자 못지않게 심도 있게 분석한다. 상당한 분량에 걸쳐(273-295쪽) 신명기적 역사 서술에 대한 논의를 기술한다. 이를 통하여 저자는 이 시대의 원자료층과 신명기 편집자의 작업을 구분하고 그 시대를 추측하는 과정을 분석한다(295-304쪽). 그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기술(왕하 25:1-11, 13-21; 왕하 23:22-23, 26-37; 24:1-12, 15-20),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본문(왕하 25:22-30)은 멸망 이후 바벨론에서 쓰여진 것으로서 각각 주전 6세기 초반과 중반에 일어난 것이며 바벨론으로의 추방과 유다의 남은 자들

에 대한 묘사는(왕하 24:13-14; 25:12) 바벨론 귀환 초기에 쓰여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의 본문을(렘 37-44장) 분석하였고(304-336쪽), 이후 통합적으로 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전해주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내용과 예레미야의 본문을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쓰여진 본문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행하였다. 이렇게 행한 저자의 의도는 각 시기의 상황에 맞게 신명기 역사서와 예레미야서가 저술, 구성되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이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세대는(주전 586-560년) 한편으로 멸망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바벨론의 통치에 타협해야함을 알려 주는 본문이며([왕하 23:22-23, 26-37; 24:1-12, 15-20의 연장으로 묘사된] 25:1-11, 13-21), 멸망당한지 한 세대 이후는(주전 560-538년) 바벨론의 지배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살아야 함을 알려 주고자 하였다(왕하 25:22-26; 27-30; 렘 37:1-10; 38:1-13; 39:1-2, 4-12, 15-18; 40:1-6, 52장).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세대의(주전 538년 이후) 본문에서는 (왕하 23:24-25; 24:13-14; 25:12, 본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예레미야의 신명기적 최종 편집)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가난한 백성으로 묘사하여 그들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들을 엘리트로 묘사하여 역사의 중심을 바벨론 포로로 이송된 이들임을 드러내주어 리더십은 바벨론 통치 기간에 그 땅에 남은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임을 밝혀 주려 한 것이 지적되었다.

## 2.4. 기여점

저자의 연구 이전에 바벨론 멸망 시기와 페르시아 시대는 에프라임 스테른(Ephraim Stern) 교수의 연구가 거의 독보적이었다. 이 책의 연구 이전까지 스테른의 주장 즉,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남유다 멸망 이후 이스라엘 지역은 가난한 자들만 남아 거의 공백처럼 남겨졌고, 다시 정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책의 저자가 보여준 역사 자료와 성서의 기술을 바탕으로 행한 역사 재구성, 날카로운 성서의 분석, 그리고 방대한 양의 고고학 자료를 제공하는 기여점 외에(2장-4장), 이 책의 가장 큰 기여점은 스테른의 위와 같은 주장의 남유다 멸망 당시의 역사 이해를 뒤집고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한편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후 남유다가 완전히 파괴된 황폐한 땅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정착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고학적으로 제시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성서의 기술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 공동체 중심으로 남유다 멸망 시기에 대한 역사해석이 들어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하여 성서가 그 중요성을 약화시켰던 집단 즉,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북쪽과 남쪽 지역에 계속하여 정착하며 살았던 그 땅의 사람들을 역사적 실체로 부각시켰다(5장). 이는 역사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역사 이해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관한 성서의 기술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 중심의 신학적 해석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 2.5. 결점

여느 기념비적인 책이 그러하듯 이 책 또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성서, 역사 자료, 고고학 자료를 다루고 있기에 각 자료의 분석에 결점을 지닌다. 먼저, 다루고 있는 시대와 관련하여 바벨론 역사 기록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주변 지역의 역사 기록, 특히 이집트의 역사 기록에 따른 역사 해석은 거의 보여 주지 않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결점이다. 이는 승자 편향식의 역사 해석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이다. 성서의 내용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순환론적 해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본문을 층으로 나누고 각 층의 본문 내용을 시기에 따라 해석하였지만, 각 층이 세 시기로 나누어지고 그 본문들이 그 시기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내용에 따라 각 층으로 나눈 것이기에 논리적으로 순환된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방대하게 제시된 고고학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해석에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 해석을 하였다. 예를 들어 메차드 하샤브야후가 이집트의 요새라는 역사적 해석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이다. 논쟁의 여지를 각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6-27쪽 103번) 그의 지도 교수였던 나다브 나아만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sup>6)</sup> 그 장소에서 발견된 비문 내용에 쓰여진 이름이 유다인들의 것임과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 등은, 이집트의 요새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남유다 왕국에 속한 것이라는 주장이 충분히 더 설득력 있는 듯하다.

6) Nadav Na'aman, "The Kingdom of Judah under Josiah", *Tel Aviv* 18 (1991), 3-71.



### 3. 결어

종합하면 이 책은 주전 7세기 말부터 6세기 말까지 약 100년을 연구하는 역사학자, 고고학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열왕기하와 예레미야를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구약학자 또는 구약학도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

<주제어>(Keywords)

예루살렘 멸망, 바벨론, 포로 귀환자, 그 땅의 사람들, 예후드 인상.

Fall of Jerusalem, Babylonia, Returnee from Babylon, People of the Land, Yehud impression.

(투고 일자: 2018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8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Betlyon, John W.,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by ODED LIPSCHIT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8:4 (2006), 737-738.
- Lipschits, Oded, “The ‘Yehud’ Province under Babylonian Rule (586-539 B.C.E.): Historic Reality and Historiographic Conceptions”, Ph.D. Dissertation, Tel Aviv University, 1997.
- Lipschits, Oded and Oeming, Manfred,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 Lipschits, Oded, Knoppers, Gary N., and Albertz, Rainer,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fourth century B.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 Lipschits, Oded and Vanderhooft, David S., *The Yehud Stamp Impressions: A Corpus of Inscribed Impressions from the Persian and Hellenistic Periods in Judah*,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 Lipschits, Oded, Knoppers, Gary N., and Oeming, Manfred,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Achaemenid period: Negotiating Identit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 Na’aman, Nadav, “Hezekiah’s Fortified Cities and the LMLK stamps”, *Bulletin of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61 (1986), 5-21.
- Na’aman, Nadav, “The Kingdom of Judah under Josiah”, *Tel Aviv* 18, 1991, 3-71.
- Stern, Ephraim,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The Assyrian,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732-332 B.C.E.)*, The Anchor Yale Bible Reference Libr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Abstract>

**Book Review -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Oded Lipschits,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Hoo-Goo Kang  
(Seoul Jangsin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book by the biblical archaeologist, Oded Lipschits who teaches at the Tel Aviv University.

The book under review is a synthesis of Lipschits' Ph.D. dissertation and following researches focusing on the significant historical event of the fall of Jerusalem. Based on historical documents and critical analysis of biblical sources and archaeological data, the book tried to figure out what exactly happened before and after the fall of Judah. The book is approached from the following points for proper evaluation: (1) the period which this book is dealing with, (2) methodology, (3) contents, (4) contributions, and (5) limitations of the book.

This book mainly focused on the critical yet neglected period, i.e. before and after the fall of Jerusalem. Because of the limited availability of historical documents, the writer approached the period through other sources in critical analysis-archaeological data and biblical passages. The book overturned the established understanding that the land of Israel became desolate and few had settled after the Babylonian destruction, arguing that there were settlers in the land and that the biblical passages were written from the returnees' point of view.

Even though the writer interpreted some archaeological data to fit his main arguments, it is still true that this book is a must for scholars and students studying archaeology, history, and biblical studies with particular interest in the 6<sup>th</sup> century B.C.E., i.e.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fall of Jerusalem and Judah.